

『월간복지』에 비친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

-‘자선’에서 ‘사회복지’까지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

최옥채⁺

(전북대학교)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요약]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인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잡지의 이름에 따라 『자선』,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 속 『사회사업』, 『월간복지』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생활보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따위의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특별히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어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포괄하는 총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월간복지』, 자선, 구제, 사회사업, 후생, 사회복지, 사회사 관점

1. 문제제기

미국 사회복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 사회복지의 역시 미국 사회복지의 영향권에 들었던 한국 사회복지의 형성 및 전개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특히 사회복지가 제도와 실천을 아우른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이는 선행연구가 규명하듯 일본 사회복지가 한국 사회복지와 관련함이 역사적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으로나 학문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한국 「생활보호법」이 일본의 「구호법」에서 넘어온 「조선구호령」에 근거한다는 점(김만두, 1985),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 시기를 1910-1963년으로 잡은 점(정무권, 1996)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원(1997)처럼 일본 「생활보호법」에서 한국 생활보호제도의 함의를 찾으려는 한국 연구자들의 노력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¹⁾ 그래서 좀더 대범하게 말하면 일본 사회복지의 용어상 변천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일본 사회복지의 형성 및 전개에 관한 이해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의 내력 일부분을 조망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 '사회복지'의 용어상 변천 과정을 가장 세밀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월간복지』를 꼽을 수 있다. 1908년에 창설된 중앙자선협회가 당시의 자선사업을 주도하면서 1909년에 『자선』을 창간한 이래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 다시 『사회사업』으로 복간시켜 1961년부터 『월간복지』로 개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아울러 이 잡지는 시종일관 일본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자선'으로 시작해 '구제'와 '후생' 및 '사회사업'을 거쳐 전개되어온 일본의 '사회복지'는 용어상 각기 어떤 상황에서 무슨 영향과 내용으로 시기에 따라 달리 불렸을까? 더욱이 중앙자선협회가 1921년과 1951년에 각각 중앙사회사업협회와 전국사회복지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왜 『사회사업』은 10년이 지난 1961년에야 '사회복지'를 칭하는 『월간복지』로 개명되었을까?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은 당시 일본의 사회상을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 용어의 변천이 간단치 않았음을 가늠케 하고, 아울러 "한 인간의 행동반경을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상태를 언어가 알려준다."(김현, 1991a: 342)는 점에서 이의 변천 내역을 소상히 밝힐 수 있다면 일본 사회복지 전개 과정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³⁾ 뒤에 다루겠지만 시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용어가 바뀐 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일본의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일본에서 매일 발행된 『월간복지』가 발간 100년을 넘기며 특이하고 소중하게도 사회복지 변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

한편 한 나라의 사회복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국가 구성체 안에서 형성 및 발전해 나아간다고 보아야 할 터이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주어진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고(이혜경, 1995: 125),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정의 주요 영역에서 정책 환경, 사회적 욕구, 상호작용, 연계와 같은 요소를 강조하고(박경일, 2007: 229),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이 형성되는 역동적 상황에 중점을 둔 과정분석이 주류를 이룬다(박병현, 2007; 원석조, 2008; 현외성, 2008)는 점에서 확인할 수

- 1) 이 밖에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화의 맹아는 일제에 의해 이식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 전통적 사상이 결부되었으나 일제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한다(안상훈·조성은·길현중, 2005)."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일본 사회복지가 한국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내용은 최옥채·黒木保博(2011)의 저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이 논문에서 이들 잡지 이름은 한글로 표시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일본어로 표기하였다.
- 3) 이처럼 용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연구자의 사유는 항상 우리가 일상사의 질서를 위해 구사하는 언어적 수단을 이용하고(임호일, 2001: 151), 어휘가 표현력을 넘어 사고력을 높이는 데까지 효력을 발휘한다(조항범, 2003)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 4) 초기 『자선』은 계간으로 발행되었고, 이후 다섯 차례나 이름을 달리했는데, 이 잡지는 연구논문뿐 아니라 각기 명칭이 달리 불리게 된 사회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있다.⁵⁾ 이런 면에서 사회복지지는 매우 복잡한 사회상황을 반영해 형성되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지를 한층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간 상호작용에 따른 역동을 주시한 연구가 한층 유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정 상황을 통합해 관련 영역들이 상호작용하여 진행된 것을 파악해 하는 사회사 관점이 시대에 따라 복잡하게 이루어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용어 사용의 변화과정을 조망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⁶⁾ 이는 역사학이 대상을 해당 시대의 여러 가지 힘들과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가운데(이상신, 1994: 34), 이에 기반한 사회사는 전체 맥락에서 사회의 역동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최옥채, 2013: 291-292). 실제로 사회사 연구자들의 문헌(이광규, 1999; 정진영, 1999; 윤해동, 1999a; 이영학, 1999)을 종합하면⁷⁾, 사회사는 특정 주제에 관한 사회적 의미, 사회적 기능, 사상적 근거, 시기별 구분, 각 시기별 정책의 성격, 사회의 변천 과정 따위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사회사적 접근은 여러 영역과 결합하여 일어난 현상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려는 오류를 피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백승중, 1996: 3).

따라서 일본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용어의 변화과정을 사회사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은 일본 사회복지지를 전체 사회상과 맞물려 한층 조화롭게 이해하는 데 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관련 용어의 변화가 품는 함의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일본 최고(最古) 사회복지 전문지이고, 게다가 ‘사회복지’의 변천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는 용어상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변천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사회사 관점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문헌고찰

1) 사회복지와 사회사 관점

사회복지지는 사회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기초로,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골조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사회복지 개념이 시대에 따라 자선의 역할로 시작해 점차 변화하고(Romanyshyn, 1971: 34), 사회복지의 속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사회구성원의 행복 추구, 인간의 기본적·사회적 욕구 충족,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5) 이외에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10)가 규정하는 ‘사회복지정책론’ 교과목에서 여러 저술가들이 이와 비슷한 정책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6) 예컨대 신규환(2006: 12)은 질병사 연구를 통해 경제사·사상사 중심의 동아시아론에서 벗어나 일상사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을 보완해 함으로써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인의 일상에 기초한 수평적 사고를 강조하였다.

7) 이들 연구자는 혼인, 혼락들의 사회사를 연구하면서 사회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반 시책과 노력, 사회적으로 총체적이며 연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는 점(박정일 외, 2010: 27)이 뒷받침한다.⁸⁾ 이와 같은 개념이나 속성은 1960년대 Wilensky와 Lebeaux(1965: 138)가 당시 “미국에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두 가지가 지배적인 것 같다.”고 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소득보장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만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포함하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개별 사회적 서비스를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을 반영한다(오정수 외, 2010: 19).⁹⁾ 결국 사회복지의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누려야 할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목적으로서 개념과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김성천 외, 2010: 43), 인간의 존엄성 확보, 개인의 자립과 성장 및 발달 촉진,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목적을 둔다(권중돈 외, 2011: 35).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정치경제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하기도 한다(김영화 외, 2007: 19). 이런 맥락에서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무권(2009: 901)도 강조한 바처럼 역사에 근거한 거시 차원과 변화과정에 중점을 둔 미시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역사로서 사회사는 그 저변에서 이끌어온 민중의 생활사와 민중의 일하던 역사를 동시에 깊이 규명하여 사회의 전체 내용을 심층까지 밝힘으로써 종래 한국의 역사연구가 고위의 중앙정치와 지배층의 역사 규명에 집중해온 것에서 탈피할 수 있다(신용하, 1984: 52). 아울러 사회사에 관한 한국 연구자들의 문헌(신용하 외, 1995: 역사문제연구소, 1999)에 의하면 사회사는 전체 사회의 변천 과정을 정치 및 경제 따위와 결합하여 깊고 넓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¹⁰⁾ 요컨대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사적 접근은 사회복지와 관련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한 사회상황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조우시켜 해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원형조각(pieces of prototype)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을 사회사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본 사회복지의 한 측면을 탐구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일본 사회복지와 『월간복지』

일본 사회복지의 미국을 비롯한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자국의 문화적 성향을 토대로 형성되

8) 특히 Romanyshyn(1971: 34-37)은 사회복지 개념을 넓게 보면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도 1) 잔여적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에서 시민권리로, 3) 선별에서 보편으로, 4) 최소에서 최적으로, 5)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개혁으로, 6) 자발적인 것에서 공공으로, 7) 가난한 자를 위한 것에서 복지사회로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9) 현재 출판된 ‘사회복지(학)’ 개론서가 수험서를 제외하고도 70여종에 이르고, 영어 원서를 번역한 것이 한 중인데, 대부분 이들 개론서가 사회복지 개념을 비슷하게 소개하고 있다.

10) 김필동(1995), 조성윤(1995), 윤해동(1999b), 이광규(1999), 정진영(1999) 등은 사회사에 관한 개념은 물론 인구변동, 가족, 사회조직, 혼인, 담배, 총력 따위의 사회사를 연구하면서 사회사 연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곳곳의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실례로 “한국 영화의 내면을 통해 당시의 삶과 지금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이효인, 2003: 8).”는 영화의 사회문화사를 들 수 있다.

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20년대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주도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협력하여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최옥채·黒木保博, 2009: 146).”고 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¹¹⁾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지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경제의 부침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었다. 경제가 부흥하면 재정이 뒷받침하고, 경제가 침체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확충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지는 복지국가 체제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과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있다(關西福祉大學社會福祉研究會 編, 2009).

일본의 사회복지 전문 잡지 『월간복지』는 중앙자선협회가 1909년부터 계간 발행한 『자선』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¹²⁾ 즉 중앙자선협회는 1917년과 1921년과 1942년에 각각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로 개칭했고, 이후 약 2년간 휴간하고, 1946년에 다시 『사회사업』으로 복간했으며, 1961년부터 지금의 『월간복지』로 바꾸어 발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중앙자선협회 역시 1921년과 1951년에 각기 중앙사회사업협회와 전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909년부터 1961년까지 52년간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지는 각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자선’, ‘구제’, ‘사회사업’, ‘후생’, ‘사회사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Hauser가 “정기간행 잡지는 새로운 독자층의 성장을 가져온 문화적 수단이 되었다(백낙청 외, 1999: 66).”고 강조하듯, 이 월간 잡지는 사회복지라는 한 영역에서 시대의 위대한 발명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특히 『월간복지』는 시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사회복지’가 변천해온 내역을 사실에 근거해 파악하는 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³⁾

3) 선행연구

일본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용어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다른 연구가 있다. 예컨대 野口友紀子(2010)가 1938-1945년에 발행된 『사회사업』을 자료삼아 사회사업이론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했고, 1940년 전후에 다수 연구자들(堀秀彦, 1939: 天達忠雄, 1940: 菊池勇夫, 1940: 福岡文芳, 1941)이 역시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사업 본질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잡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리스와 로마를 포함한 서구에서는 중세에 기독교가 자선사업을 실천한 것으로 소개함으로

-
- 11) 물론 기독교 이외의 종교, 예컨대 당시 불교계에서는 일본 사회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강조했고(谷山惠林, 1935), 사찰 중심의 사회사업의 실상을 소개하였다(大森公亮, 1935).
 - 12) 『사회와구제』부터 1권 1호로 시작했고, 발행처도 제호가 바뀌면서 중앙자선협회에서 중앙사회사업협회와 전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었으며, 특히 1956년부터 영어 명칭 Social Work를 병기하며 영어 목차를 부가했다.
 - 13) 이와 같은 자료의 가치는 김현(1992: 476)이 “이론은 자료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자료의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한 점에서 더욱 고양되어야 한다.

씨(지윤, 1985) 사회사업 이전에는 자선사업으로 불렸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Woodroffe(1974)는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 활동에 중점을 둔 그의 저술의 제목을 '자선에서 사회사업'이라고 붙임으로써 사회사업 이전에 자선(사업)이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논문보다는 잡지의 투고문이나 저술에서 사회복지가 들어서기 전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삼국시대에는 민생구휼과 구제제도와 같은 구호정책이 소개되었고(이영환, 1998), 일제강점기에는 공민구제토목사업이 식민정책으로 있었으며(이중범, 1988: 122), 개화기 무렵에는 빈민구제사업이나 고아구제사업 따위를 묶어 사회사업으로 일컬어졌다(강만길, 1979).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기관이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 빈핍한 자를 구제하는 사업이 곧 자선사업으로 불렸고(주간, 1954: 1), 특히 자선은 기독교 교훈의 핵심으로 꼽혔다(이춘봉, 1978: 1). 나아가 1960-70년대에는 사회개발과 사회부조가 사회복지에 앞서 쓰였다(김영모, 1973).¹⁴⁾ 요컨대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시기에 따라 구휼, 자선, 구제, 사회사업, 사회개발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으나(남세진, 1979; 구자현, 1970) 각기 용어를 사용한 전체 사회적 내력은 규명되지 않았다.¹⁵⁾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앞서 언급한 『자선』, 『사회와구제』, 『사회사업』, 『후생문제』, 복간된 『사회사업』과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발행된 『월간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월간복지』의 발행기간을 1961년부터 1969년까지로 한정된 것은 9년간 발행된 내용만으로도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바뀐 배경을 살펴보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1909년부터 1969년까지 60년간 발행된 『계간복지』를 바탕으로 이 기간에 일본에서의 사회복지가 용어상 변화해온 점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했다.

2)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를 『월간복지』가 여섯 번이나 이름이 바뀌어 발행된 점에 주목하여 특정한 분석틀을 활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하였다.

-
- 14) 아울러 이 시기와 관련해 장인협(1981: 52)이 급변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사회사업 전문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김상균(2009: 10)이 한국 사회복지학 역사에서 미국 소셜워크학의 수입기(1958-1978)로 구분한 점을 통해 당시에도 여전히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15) 특히 남세진(1979: 53)은 1974년에 사회사업교육협회의회가 교과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개발에서 사회사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루었다고 보고했고, 전남진(1986)은 미국에서의 시기에 따른 이슈 중심으로 사회복지 내용의 변천을 다루었다.

첫째, 잡지의 이름을 바탕으로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자료를 읽어 주요주제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잡지의 차례를 살펴 당시의 사회복지 및 관련 사업이나 시책 따위가 사회사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 중심으로 원문 자료를 읽었다. 예컨대 『후생문제』 시기에서 ‘결전 하의 국민생활’이라는 주제의 특집호에 실린 논설 4편 중에서 ‘국민생활과 후생사업’(松本征二, 1942)을 선택해 본문을 읽었다.

둘째, 연대순에 따른 시기별 자료로부터 사회사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반영해 주요 주제를 이끌어냈다. 예컨대 『자선』 시기에서 다른 시기에도 있을 법한 ‘범죄인의 감화사업’을 굳이 주제로 이끌어낸 것은 당시 독자들이 자선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포함해 범죄인의 재활에 유독 관심을 쏟았고, 나아가 출소자를 위한 시설이 일본의 초기 자선사업시설이라는 역사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기를 달리하며 같은 주제가 있을 때는 사회사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설명될 수 있는 시기의 것을 선택했다.¹⁶⁾ 특히 『사회사업』 시기는 20년간의 방대한 자료라 5년 단위로 끊어 주요 주제를 찾아냈다. 그럼에도 한 주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을 다룰 때 연대순으로 정리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 현상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셋째, 시기별로 잡아낸 주제를 형성하여 이를 역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때 잡지에 실린 논문이나 주요 관련 기사 따위를 활용하기도 하고, 당시 상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찾아 활용했고, 가능하다면 이들 자료의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사회사업』 시기에서 이끌어낸 ‘이촌문제와 농촌사회사업’을 당시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상황과 전쟁을 준비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연계해 드러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활용하였다.¹⁸⁾

넷째, 전체 60년간 사회복지 관련 용어 변화를 사회사 관점에서 통합 정리하였다. 이 정리를 통해 6 시기로 구분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각 시기 안에서나 시기들 간에서 연결을 편년체화하기 위해 주제들의 순서를 바꾸어 정리함으로써 전체 해석을 한층 치밀하게 펼칠 수 있었다.¹⁹⁾

3) 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

이 연구를 엄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 16) 예컨대 ‘실업문제’가 『사회와구제』 시기와 『사회사업』 시기에 나타났는데, 전자의 시기에서의 실업 상황이 후자의 시기에서보다 훨씬 심각하게 정치경제적으로 부각되어 이를 『사회와구제』 시기에서 다루었다.
- 17) 예컨대 이 시기에서 처음에 잡았던 ‘사회교육과 농촌사업’이라는 주제가 사회교육과 농촌사업이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등장한 시기가 달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교육’과 ‘이촌문제와 농촌사회사업’으로 분리했다.
- 18) 실제로 이 주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향신문(2012)이 당시 상황을 다룬 加藤陽子(2009)의 저술을 구입하여 원문을 찾아 사회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 19) 이 내용은 전체 논문의 분량을 고려하여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다.

첫째, 사회사 관점을 적용하는 데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더욱 치밀한 해석도 필요함에 유의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는데, 예컨대 당시 일본을 언급하는 논문 이외에도 신문이나 단행본을 참고하여 논지의 객관화에 힘썼다.

둘째, 비록 용어는 다르지만 ‘자선’으로부터 ‘구제’, ‘사회사업’, ‘후생’이 지금의 사회복지와 일맥상통하게 이어 내려오음을 주시하며 이들 용어에 근거해 분류한 시기별 사회사적 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점을 두었다. 즉 용어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편견을 두지 않고 자료에 소개된 내용에 집중하였다.

셋째, 일본의 원문 및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일지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두 연구자가 노력하였다. 예컨대 일본의 자료를 참고문헌에서 저자의 알파벳순까지도 엄격히 지켜 정리하였다.

4. 일본 ‘사회복지’의 시기별 사회사적 특성

1) 『자선』 시기

일본의 자선사업 독지가들은 1908년에 중앙자선협회를 결성하고, 『자선』을 이듬해 10월부터 1917년 4월까지 계간으로 총 8권 32호까지 발행했다.²⁰⁾ 이 자료로부터 몇 가지 주제를 뽑아내어 해석하였다.

(1) 엄중한 자혜구제 선언

중앙자선협회는 1909년에 『자선』 제1권 1호를 통해 회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문명국가로서 자혜구제(慈惠救濟)의 길을 강구하기 위해 『자선』을 창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협회 창설 1주년을 맞아 향당인보(鄉黨隣保)의 정을 생각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과 재앙이 겹쳐 불운에 처한 당사자를 돕겠다고 엄중히 각오했던 협회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이루어졌다.²¹⁾ 이 무렵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하며 아시아 승자의 자리를 확립했다고 하나 대학가에는 퇴역군인들이 자리를 잡는 분위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농촌은 피폐되고 도시에는 실업자가 유입되어 불황에 빠져있었다(水尾比呂志, 2004: 33-38).

(2) 범죄인의 감화사업

당초 중앙자선협회는 유달리 비행청소년을 포함해 범죄인을 교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잡지에 감화사업이 빈번하게 소개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빈곤이나 질병보다 감화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상은 1897년에 동경출옥인협회를 조직하여 감옥개량운동

20) 당시 중앙자선협회는 발행 편수를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로 산정해 매겼다.

21) 향당은 지역사회를 일컫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김학목(1955: 48)이 처음으로 『사회사업개론』을 내면서 ‘지역사회조직’을 ‘향당지도사업’으로 칭하였다.

을 주도한 하라(原胤昭)와 당시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가정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토메오카(留岡幸助, 1901: 片岡優子, 2011)가 중앙자선협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관련한다고 보아 마땅하다.²²⁾ 이 사업은 『자선』이 『사회와구제』로 바뀐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타났다.

(3) 종교기관과 황실의 지원

자선사업의 정당성이 종교를 바탕으로 확보되고, 나아가 종교기관의 물질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울러 황실은 은사금을 내려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종교기관과 황실의 지원은 남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도와줌으로써 자선을 설명하는 사전적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1908년 전후로 일본에서는 대학의 자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목적과 국가의 이해가 대립한 상황에서(京都大學大學文書館, 2006: 6), 특히 황실의 관여는 원만하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4) 구미 자선조직의 영향과 지속적인 구미시찰

일본의 자선사업이 구미의 자선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한 중앙자선조직이 영국과 미국 자선조직의 영향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00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빈민 연구회는 무계획한 구제의 폐해를 제기하며 1869년과 1877년에 각각 영국과 미국에 설립된 자선조직 협회의 사업을 공감하며 1908년에 중앙자선협회를 조직하였다(原胤昭, 2013). 한편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미시찰단을 파견해 외국의 자선사업을 견학하여 일본에 소개하였다. 실제로 『자선』에 소개된 글 중에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따위를 시찰한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 『사회와구제』 시기

중앙자선협회는 1917년 10월에 잡지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겠다며 계간으로 발행한 『자선』을 『사회와구제』로 개제(改題)하여 월간으로 발행하고, 제1권 1호로 시작해 1921년 3월까지 제4권 12호까지 총 48호를 발행했다.²³⁾ 이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주제를 잡아내어 해석하였다.

(1) 구제사업과 사회사업가 양성

협회는 지난 10년간 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기관을 한 데 엮어 서로 소통케 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면서 감화사업을 비롯한 구제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이에 필요한 신지식의 개발을 다짐했다(澁澤榮一, 1917: 1). 구제사업이 대두한 것은 전쟁을 시작한 상황에서 재정, 경제, 군사, 교육 분야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때문이고(渡邊勝三郎, 1917: 3), 구제사업은 범죄인을 포함한 빈민, 실업자, 실패자, 낙오자와 같이 위기에 처한 자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합당한 시설을

22)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선사업가나 사회사업가로 소개되고 있다.

23) 『자선』에서의 편수를 권수로 바꾸고, 『자선』에서와 같이 권수 역시 10월에 1호로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12호로 마치게 산정하여 매겼다.

운영하여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小河滋次郎, 1917: 11), 여기에서 개인의 자선심보다는 여러 사람이 단결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後藤新平, 1917: 6). 요컨대 구제사업은 요구자를 앞에서의 자선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일본은 1915년을 넘기면서 유럽제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자 일본 경제계는 전에 없었던 호경기를 누렸고, 전쟁경기를 기회로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하며 세계에서 드문 제국주의국가가 되었다(박영주, 1988: 20). 이와 함께 협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그 면모를 과시하며 세를 넓히는 가운데 사회사업가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田子一民(1919)은 구미 사회사업가의 활동상을 언급하면서 일본에서의 사회진단과 같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효과적인 구제사업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회사업가 양성을 위한 기관이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전쟁과 보건위생사업

일본이 영국과 동맹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중에 일본에는 보건위생사업이 대두하였다(窪田靜太郎, 1918).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강화했는데, 예컨대 1920년 8월호부터 30여 쪽 분량의 사회국 소식란을 신설하여 정부의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정부가 예전보다는 사회문제에 한층 더 책임을 지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협회는 보건위생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필자를 통해 지금의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식민사업을 소개하면서 사회사업가는 현미경과 망원경처럼 빈민의 실상을 정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가 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ロバート・エー・ウツド, 1919: 1).

(3) 실업문제와 직업소개사업

실업문제와 함께 직업소개사업 역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대두하였고(生江孝之, 1918), 당시 사회문제로서 실업 이외에도 알코올, 노쇠자, 식량, 매춘부, 정신질환, 유아사망과 같은 문제가 성행하였다. 특히 전쟁을 치르며 공장에서의 위생도 강조되었고, 군사보호는 물론 아동의 복리문제가 거론되었다.²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여러 사회문제와 함께 관련사업이 확장된 면을 볼 수 있고, 이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종교의 사명이 강조되기도 했는데(濱田本悠, 1918),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일본인을 다른 민족과 구별케 하는 정서적 특성은 타고난 본성이나 뇌구조보다는 사회질서에 의한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다(Gulick, 2012: 176).”고 한 일본인의 성향에 어느 정도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사회사업』 시기

중앙자선협회는 1921년 4월에 중앙사회사업협회로 개칭되면서 『사회외구제』를 『사회사업』으로 개

24) 이와 관련된 글은, 예컨대 『사회외구제』 제2권 4호(1918년 7월)에 실렸는데, 글을 쓴 이들은 행정재판소나 내무성과 같은 관료가 대부분이었고,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하여 1941년 12월까지 제25권 12호를 넘으로써 총 249호를 발행하였다.²⁵⁾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주제를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1)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대두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당시 사회사업이 관심을 두었던 사회문제와 사회생활의 변화가 있었다(木田徹郎, 1929: 3). 즉 사회문제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조직과의 관련성 따위를 안고 있는 사회를 한층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사업가에게 사회생활에서의 개인관계의 처지나 사회집단의 조직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전문기술이 강조되었다(古坂明詮, 1931: 2). 이는 제1회 사회사업강습회 실시, 실업문제의 심각한 대두, 『구호법』에서 『사회보장법』으로의 주장, 사회진단과 케이스워크의 조사 표준요령 발표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뒷받침한다고 하겠다.²⁶⁾

(2) 소년노동과 아동보호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직업아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929년에는 소년노동이 사회운동으로까지 펼쳐졌다. 특히 도제제도의 붕괴기를 맞이하여 소년노동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면서 이들을 위한 직업지도운동이 일어났고, 소년직업소개사업까지 등장했다.²⁷⁾ 한편 아동보호가 인생에서 어느 시기보다 소중함을 동서양을 불문하고 불교, 유교, 기독교에서 공히 강조되었고(澁澤榮一, 1926: 4), 아동의 환경에 따라 고아와 빈곤아동으로, 신체결함에 따라 청각장애와 신체장애로, 정신상으로 저능아동과 백치아동으로 구분되었고, 특히 황실에 의해 촉진되었다(一木喜徳郎, 1926: 2-3). 과거의 구빈사업에서 벗어나 빈곤예방에 주력하면서, 예컨대 아동보호를 통해 사회의 개선을 꾀하려는 한 가지 방책으로써 문부성이 1식 4전을 표준으로 급식안을 마련했다(權名龍徳, 1932: 45).

(3) 『구호법』과 방면위원회

메이지정부 이래 구조규정(救助規定)에 불과했던 것을 발전시켜 1929년에 『구호법』이 제정되었다(小澤一, 1931: 3). 여기에는 『건강보험법』과 『노동자재해부조법』을 포함하여 23개 사회입법이 있었고, 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사회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호위원을 두었다(富田象吉, 1931: 4-5). 한편 방면위원회는 1917년과 1918년에 각기 오카야마현과 오사카부에 창설되어 1929년 말에 전국의 부와 현에 설치되었다(中村孝太郎, 1933: 35). 이 제도는 조직사회사업과 매우 깊게 관계한

25) 발행기관과 잡지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권수는 『자선』에서 『사회와구제』로 바뀔 때와는 달리 제5권으로 매겨 시작했고, 1939년 12월에 제23권 9호로 마감하고, 1940년 1월에 제24권 1호를 발행함으로써 호수(號數)와 발행 월을 일치시켰다.

26) 이들 상황은 『사회사업』 제9권 5호(1925년 8월), 제13권 7호(1929년 10월), 제13권 8호(1929년 11월)에 소개되고 있다.

27) 소년노동에 관해서는 『사회사업』 제10권 9호(1926년 12월), 제13권 1호(1929년 4월), 제14권 2/8호(1930년 2/11월)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고, 특히 여기에서 山崎巖(1930: 5)는 아동학대 방지와 함께 노동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小澤一(1925: 5)가 방면위원제도를 서구의 자선협회운동에 견주며 인보제도의 부활로 보았다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고, 나아가 방면위원에게 사회사업적 훈련이 강조되었다. 요컨대 “방면위원제도의 필요성은 사회사업의 철저와 통제에 근거한다.”(藤野惠, 1926: 18)는 점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4) 세틀먼트사업과 지구

기존 사회사업의 대상은 특수한 사람이라며 인보사업으로도 불린 세틀먼트사업이 지구(地區)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졌다(大林宗嗣, 1930b: 19). 요컨대 종합적 사회사업의 한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틀먼트사업의 방법은 현장의 상황이나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특정 대상 지구의 교통, 주택, 경제상황 따위를 검토 및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여러 사업 중에서 세틀먼트사업으로 합당한 것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丙片孫一, 1930: 40).²⁸⁾ 일본에서 당시 주요 세틀먼트사업은 공영과 사설로 구분되고, 아동보호와 감화에 중점을 둔 탁아소 운영을 비롯하여 노동자 야학교와 농민 학교 운영, 주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및 요리 따위가 소개되었다(小林正金, 1930: 75-76). 이런 상황을 통해 기존의 케이스워크를 넘어 지금의 커뮤니티인 지구가 등장하였고, 지역사회사업의 시초를 이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이촌문제와 농촌사회사업

1920년대에 일본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도시화의 시대로 불렸고(서민교, 2013: 90), “농촌은 지금 사멸에 임박해 있다.”(本城俊明, 1925: 2)는 절규가 있었다.²⁹⁾ 즉 농촌문제는 전적으로 농민의 이촌에 의한 것이고(長崎發生, 1928: 42), 근대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발달과 도시의 팽창으로 그 이전에 농촌이 지닌 사회유대가 약해져 도시에서와 같은 사회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彬山元治郎, 1928: 6). 이는 산업화에 의한 것인데, 이런 실상은 “산업화야말로 사회의 부패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전성에 대한 열망, 자유의지, 자기 창조의 정신이 필요하다(이영석, 2006: 27).”고 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사회사업이 대두하였는데, 이는 전쟁을 치르는 군부가 농민출신의 군인을 달래는 수단으로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1930년대에 들어서는 중일전쟁을 치르던 일본 군부는 총력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비상사태에 처한 대책요강’을 만들어 농민구제, 비료판매의 국영화, 농산물가격 유지, 소작농 보호, 농민을 위한 저리 대부 등을 발표하였다(加藤陽子, 2009: 315-317).

28) 한편 丙片孫一(1930: 44)는 개인이나 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워크의 방법이 지구를 단위로 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29) 예컨대 당시 농촌사회사업으로 강조된 것은 아동보호사업(젓먹이아동보호 따위), 경제적 보호(주택 개량, 공영 금융기관 설치, 공설 목욕탕 설치 따위), 의료보호(농촌의 사망률 낮추기 따위), 방면위원제도(대도시처럼 농촌으로도 확대 따위), 사회교화(시대사상 선도 따위) 등이었다(守屋榮夫, 1927).

(6) 사회사업의 대중화와 정치세력화

협회는 1930년 1월호(제13권 10호)에 ‘사회사업의 대중화’라는 부제를 달아 사회운동에서 사회사업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大林宗嗣, 1930a: 3).³⁰⁾ 나아가 정치적 진출을 위해 대중을 획득하고(木田徹郎, 1930: 37), 당면 문제로서 정치전선에의 사회사업의 진출을 강조하였다(磯村英一, 1930: 43). 즉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가운데 자본주의가 악화된 경제제도에서 실업문제와 함께 노동문제의 대두는 사회사업의 대중화를 불러왔고, 이 대중화는 경제 전반을 반영하는 정치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대중을 위한 대중에 의한 정치운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부르짖었다. 한편 大石三良(1931: 23)은 사회사업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사회사업 관계자가 동맹회와 상시 동심일체가 되어 단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7) 후생성 신설과 전시상황 대비

일본 정부는 전에 없는 전시상황을 맞아 1938년에 후생성을 신설하여 군사원호, 후방지원사업, 사회정책의 확충과 강화 따위를 통해 국민체위를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그 사명을 갖는다고 하였다(伊藤清, 1938: 2). 이와 같은 사정은 1937년에 시작한 중일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상황에의 대비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海野幸徳(1937: 19)은 준전시체제나 비상시체제에서 사회사업은 상황을 총괄하는 집중주의와 전체주의화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에 적지 않은 효용을 불러왔는데, 실제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구미의 대국에 처음으로 대사관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의 격을 높였고, 이전의 불평등했던 국제관계를 해소했다(加藤陽子, 2009: 142). 이 무렵 잡지에 실린 내용도 매우 단순해졌다. 아울러, 특히 전쟁기에 사회사업이 정부와 군부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는데³¹⁾, 이와 같은 실상은 영국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나오고, 비버리지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신광영, 2013).

4) 『후생문제』 시기

중앙사회사업협회는 사회사업연구소를 설치해 후생사업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근거를 강조하며 1942년 1월부터 1944년 8월까지 『후생문제』로 게재하여 총 32호를 발행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몇 가지 주제를 만들어 해석하였다.

30) 여기에서 大林宗嗣(1930a: 6-7)는 사회사업을 좌익이론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계급사회에서 생활함을 확신하며 변증법적 운동법칙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보았다.

31) 실제로 1938년에 『사회사업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법률에 의해 사회사업의 존재와 권위를 승인하게 되었고(牧賢一, 1938: 40), 나아가 大林宗嗣(1939)는 생산적 사회사업을 강조하였다.

(1) 국민생활 재건과 후생시설의 지역화

전쟁을 치르면서 군부는 시중 국민생활의 혁신을 강조해왔다.³²⁾ 국민생활이 달라져야 함은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총력전이 요구되는바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소비에서는 소비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重田信一, 1942: 61). 이와 같은 운동의 밑바닥에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한 식량난이나 보건위생 및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생시설을 인보조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전쟁경제는 붕괴되어 1941년부터 통장제(通帳制)에 의한 쌀과 부식품을 할당 배급했고, 군대와 군수공장으로 농업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업생산 역시 폭락했다(박영주, 1988: 192).

(2) 건민과 증산과 증세

당시 일본의 위기에 처한 사회의 징표로 튼튼한 국민(健民), 생산력 증강, 증세를 강조하였다. 즉 엄연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빈약한 사회정책이나 사회사업에서 벗어나 계속된 결전을 위해 튼튼한 국민으로서 국운발전의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清水伸, 1943: 1). 아울러 노동자의 근로와 휴양을 강조하면서 생산력 증강에 힘써야 하는데, 이에 부인의 노동력까지 언급하였다(後藤清, 1944: 4-5). 나아가 전시하의 예산을 소개하면서 예산이 비약적으로 팽창해 거액의 증세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安藤政吉, 1944: 3).

5) 속 『사회사업』 시기

1944년 9월부터 1946년 5월까지 발행이 중단되었던 『후생문제』는 1946년 6월에 다시 『사회사업』으로 바꾸어 제29권 1호로 시작해 복간되었고, 1961년 12월까지 총 168호가 발행되었다.³³⁾ 이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주제를 끌어내어 해석하였다.

(1) 생활보호와 사회사업의 새 얼굴

정부는 전쟁을 마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당시는 “암시장, 폭력, 절망, 사기 따위 속에서 사람마다 저를 지켜야 했던 때(최인훈, 1998: 58)”라고 하였다. 실제로 식량난, 물자난, 악성 인플레이션 아래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려 했으나 미처 사회사

32) 후생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후생사업은 기존 사회사업이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한정했던 것을 더욱 발전시켜 소액소득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보건, 노동, 경제, 교육, 문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운영함을 강조하였다(小澤一, 1942: 22).

33) 이때부터 호수를 영어로 표기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지 두 달 치를 합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잦았고, 6월에 속간을 시작하면서 Vol. 29 No. 1로 칭하고, 1947년부터 호수와 발행 월을 일치시켰다. 한편 1951년 1월에 발행처가 중앙사회사업협회 사회사업연구소에서 전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었고, 잡지명을 기존과 반대로 원편에서 오른편으로 쓰기 시작했다. 아울러 1956년부터 ‘사회사업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대체되고, 1957년에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업 조직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다며 새 출발을 강조하였다(福山政一, 1946: 2). 특히 이 시기에 총동원을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도 있었다.³⁴⁾ 전후 실업자와 부랑자가 난무하고, 부상자와 재해자의 생활이 비참한 가운데, 전쟁의 원인을 군벌과 재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반동사상이 만연하였다. 이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사업』으로 개제 복간하면서 자선이나 구제가 어려움을 알고 『사회사업』이 새로운 이념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³⁵⁾ 예컨대 谷川貞夫(1946: 4-5)는 과거 일본 사회사업의 이념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종속성이 강했으나, 이제는 제국주의적 지도세력의 제거와 철저한 민주화 따위와 같은 포즈담선언을 이행하며 한층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사회사업의 이념으로 발전해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사회사업실천 이론과 임상사회사업가 교육

중앙사회사업협회의 사회사업연구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회사업실천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小澤一(1946: 35-36)는 사회사업활동의 본질에 근거하여 공동복리를 강조하며, 사회사업실천을 수행하는 기본 기술로 케이스워크,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 그룹 워크를 소개하였다. 한편 미국의 사회사업학교를 소개하기도 하고(伊佐忠一, 1946: 17)³⁶⁾, 교호소년들과 같은 사회사업가가 맡아야 할 대상이 다양하다며 임상사회사업가의 배출을 희망하기도 했다(藤井忠治郎, 1946: 17).³⁷⁾ 이에 덧붙여 사회사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는데, 특히 사회사업을 이끌어갈 청년이 절대 부족한 점을 직시하여 후계자를 위해 철저한 교육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今岡健一郎, 1947: 1).³⁸⁾ 이와 함께 사회사업의 과학성도 제기되었는데, 인간행동 및 인간관계와 집단역동을 비롯하여 기술로는 비지시요법 따위가 소개되었다(谷川貞夫, 1954: 3). 일본에서 사회사업의 과학성은 1908년에 실시한 ‘감화구제사업강습회’로부터 강조되었고, 이후 1918년 쌀과동 속에서 사회사업의 성립기를 맞이하여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대학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木田徹郎, 1955: 47).³⁹⁾

34) 중국은 1942년에 전쟁 중 대기근을 맞이해 ‘총동원회’를 설립해 운영하였다(고상희, 2013: 177).

35) 이런 상황은 “전후의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가정을 상실해 불안감에 빠지는가 하면, 공황 및 암시장 따위로 새로운 부유층이 나타나 망설임 없는 삶을 탐닉하기도 했다(김현, 1991a: 22).”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36) 이 자료는 미국의 최초 사회사업학교가 1898년에 개설된 뉴욕시자선사업협회의 6주간 강좌였고, 1903년에 이 기간을 6개월 연장했으며, 1904년에 박애사업학교(1946년 당시 뉴욕사회사업학교)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미국의 역사를 소개할 때 한국의 문헌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37) 藤井忠治郎(1926)는 일제강점 초기부터 한국에 20년간 거주하며 경상북도 구제회 이사를 역임했고, 이 지역에서 사회사업 활동에 참여하며 기독교 전도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선 하층민의 실상을 알아 『朝鮮無産階級の研究』라는 저술을 냈다.

38) 사회사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은 중앙사회사업협회의 사회사업연구소가 대학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연구생제도를 1928년에 도입하여 심층교육을 실시했고, 1944년까지 총 17회를 배출하였다(日本社會事業大學四十年史刊行委員會, 1986; 阿部敦・渡邊かおり, 2013에서 재인용).

39) 한편 吉田久一(2004)은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학문과 외국 의사들이 일본 의학생을 교육하는 가운데 1857년에 실시된 ‘위생학 임상강의’를 사회사업 교육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갑자기 강해진 것은 유럽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김현, 1993: 142).”라고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과 커뮤니티

전쟁을 마치고 새로운 사회사업의 이념을 서서히 드러내며 1951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이야말로 1874년에 『홀구규칙』이 만들어져 근대 사회사업을 전개시켰던 이래 새로운 사회사업체계를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黒木利克, 1951: 6). 어쨌든 ‘사회사업’보다 ‘사회복지사업’이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大河内一男(1954: 7-8)은 두 용어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일본에서의 당초 사회사업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과 달리 사회정책입법이나 노동입법의 불충분한 대체물로써 기능했음을 강조하였다.⁴⁰⁾ 바로 이런 점에서 일본에서의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을 거쳐 ‘사회복지’로 넘어왔음을 추찰할 수 있다. 한편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에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했는데, 이는 1936년 런던에서 ‘사회사업과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회 국제사회사업대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구체화된 것이고(谷川貞夫, 1951: 4), 지역사회는 당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지역조직화사업(community organization)이 소개 및 강조되었다(竹中勝男, 1951: 6). 당시 일본에서의 지역조직화는 신퇴-복종-보호를 이루는 봉건적인 신분관계, 파쇼적인 강권, 민주주의의 3가지 기저에 의해 이루어졌다(塚本哲, 1952: 4).

(4) 사회보장과 민간사회사업

佐藤信一(1954: 44)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사업계에 제기된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의 길’이 발표된 1933년이라고 하겠다.⁴¹⁾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노후의 불안을 경계하며 노령자의 사회보장이 대두하였고(内野仙一郎, 1954: 2), 사회보장 예산이 195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⁴²⁾ 이는 사회복지의 분야별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1953년 5월호에서는 아동복지를 특집으로 내면서 열악한 시설에 있는 아동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이 분야의 투자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인복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1958년 9월호에 노인과 가족의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노후의 생활설계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사회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아래 선구적이고 개척적으로 일궈 온 민간사회사업이 전후 10년을 맞이하면서 민간사회사업의 시설이 남아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민간위탁제도가 민간시설의 하청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谷川貞夫, 1955: 2). 이와 같은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눈을 떠야 하고(牧賢一, 1955: 2), 특히 민간사회사업에서는 독자성과 세습의 탈피와 직원 처우의 개선이 강조되었는데(丹羽昇, 1955: 3-6), 여기에서 사회사업가가 지역사회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가로 자처해야 함이 강조되었다(横山定雄, 1956: 9). 이와 같이 민간사회사

40) 이는 사회정책을 “경제적 약자인 노동계급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백창석, 1959: 3)”이라고 한 점과 일치하고 있다.

41) 일본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1874년에 『구홀규칙』, 1917년에 『군사구호법』, 1929년에 『구호법』, 1941년에 『의료보호법』, 1946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사회보험으로 1922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1927년에 산업노동자와 직장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

42) 실제로 1949년에 국가예산의 3.2%에 불과했던 사회보장이 1950년에 6%로 증가하였다(内山脩策, 1955: 5).

업이 대두한 배경으로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강조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1955년 8월호가 ‘지역에의 각성’을 특집으로 다룬 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정촌의 조직화에서 청년단과 부인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松田仁兵衛, 1955).

(5) 정촌 단위 소 사회복지협의회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9년에 ‘사회사업 전문가의 생각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 내용을 4월호에 실었다.⁴³⁾ 주요 내용은 시정촌(市町村)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 조직화와 이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기본 요령이 만들어져 도도부현, 군시, 정촌 조직의 구상을 부록으로 두었다. 여기에 방면위원이 협력하여 조직화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생위원의 지역사회 니드 파악, 민생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의 역할, 소 조직이론의 강화, 조직대표의 의식, 조직 추진자 발굴과 이들과의 협력, 소 조직 활동의 평가를 위한 특별한 기준 따위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일본에서 사회복지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의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6) 『월간복지』 시기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61년 1월부터 『사회사업』을 『월간복지』로 개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69년 12월까지 발행된 총 108개월 치만을 자료로 활용하였다.⁴⁴⁾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주제를 이루어 해석하였다.

(1) 지역사회조직활동과 모금활동

『월간복지』로 바뀌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한 가지로 지역사회조직활동을 들 수 있다. 이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당면과제로 상정되기도 했는데(木村忠二, 1961: 28),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니드를 파악하고, 이들의 참여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강화를 연재했다.⁴⁵⁾ 이전까지 발행된 『사회사업』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위한 지역조직화 사례가 소개되거나(雀部猛利, 1960), 지역사회의 빈곤을 추방하는 운동을 강조하는 정도였다(重田信一, 1960). 이와 같은 주장에는 “주민주체의 원칙(岡村重夫, 1963: 2)”이 토대가 되고⁴⁶⁾,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발굴과 활용 차원

43) 이 좌담회에는 岡村重夫(오사카시립대 교수), 牧賢一(사회복지조사회 상무이사), 鷲谷善教(일본사회사업대학 조교수), 新國康彦(전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44) 이렇게 한정된 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처럼 9년 치만으로도 『월간복지』가 품고 있는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해서이다. 한편 1966년 9월에 발행한 제49권 8호까지만 권수와 호수를 표시하고, 이후부터는 호수를 연도와 월만으로 표시하였다.

45) 실제로 1961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호를 『월간복지』로 바꾸면서 편집부는 첫 호 개제의 인사말에서 주민주체의 지구조직활동에 중점을 두어 관련 기사를 강화하고, 지금까지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에서 지역주민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육성이 강조되었고(那須野隆一, 1968), 그래서 세틀먼트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조직화가 이루어졌다(岡村重夫, 1968). 한편 일본에서는 민간복지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쳤는데, 이는 1947년 미군정 아래 시작되었고, 이 무렵에 모금액 중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소 지역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이었다(二瓶万代子, 1961: 3). 이와 함께 볼런티어활동과 주민참여가 강조되었는데, 특히 小倉襄二(1967)는 위선에서 벗어난 자선과 선의와 실천이라야 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에서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복지사무소가 요원호자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문을 연 것이 15년 남짓 되었음에도 직원이 맡는 업무의 과중, 빈번한 직원의 경질, 자격기준의 불명확 따위로 대상자가 경원하는 곳으로 되고 말았다(仲村優一, 1966: 23).⁴⁷⁾ 특히 직원의 자격기준의 불명확함은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너럴리스트인지 스페셜리스트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가 자격기준과 함께 대두되었다. 예컨대 八木嚴(1962: 3-4)는 자격은 예전의 자선사업가 따위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체 아래 급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사자라고 했는데, 이는 그 자격제도가 뒤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3) 대도시화와 보건복지계획

대도시화는 공업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이는 공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⁴⁸⁾,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의 고도성장 및 안정 정책이 사회와 노동에 큰 변화를 불러온 상황에서 보육과 아동수당제, 의료보장, 노인의 생활과 복지 보장이 쟁점으로 드러났다(孝橋正一, 1965). 이처럼 산업화가 불러일으키는 제반 사회상황은 “산업사회화 되어가면서 인간이 물질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두 대립항은 정신/물질로 설정이 된다(진형준, 2001: 89).”고 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산업화는 자본의 흥행 속에서 “욕망의 체계에 포섭된 대중이 형성되기 시작(김태환, 2001: 175)”하여 빈부의 차이를 비롯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예컨대 大藪壽一(1967)는 도시화가 사회복지의 상황을 다양화와 다원화로 전개시키면서 인간성 변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변화, 무조직적 인간집합체의 사회심리 변화를 불러오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내용이 빈약해지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복지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에 한정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나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보건복지계획을 시정촌의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세워 나아가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는데(渡部剛士, 1962), 이것이 장차 지역복지계획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6) 특히 이 원칙은 주민이 공권력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眞田是, 1963: 24).

47) 복지사무소는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48) 『월간복지』, 1965년 6월호에서 신산업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八戶市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반면 주민복지를 저해함을 알렸다.

5. 논의 및 제언

일본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와 시대상을 전속으로 소개한 『월간복지』를 자료삼아 사회사 관점으로 사회복지의 용어상 변천에 중점을 두어 여섯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의 ‘자선’, ‘구제’, ‘사회사업’, ‘후생’, 속 ‘사회사업’, ‘복지’라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내용과 당시의 사회복지 환경을 바탕으로 특성을 띠며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파악한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며, 이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였다.

첫째, 1909년부터 1969년까지 발행된 『월간복지』의 편집과 제책(製冊) 상태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 여정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 근대 사회복지의 발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감지케 한다. 이 잡지에서 보이는 계간에서 월간으로, 왼쪽으로 쓰기에서 오른쪽으로 쓰기로 들과 같은 변화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종이 질의 저급화, 합본발행과 눈에 띄게 줄어든 분량, 1946년부터 권수와 호수의 영어 표기, 1956년부터 잡지명과 목차에 영어로 부기한 것 따위가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을 거쳐 사회사업과 후생사업으로 전개되어 사회복지로 발전한 양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사회복지가 그만큼 국민, 특히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의 일상과 잡지의 편집을 포함한 발행 환경이 당시의 사회상과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당시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의 민간의 주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직접 관여했고, 아울러 민간이 협력자로 가담하면서 민간시설의 운영이 쟁점화 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초기의 자선사업과 이후의 구제사업은 사회의 고위층에 속한 민간이 황실과 밀접히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여기에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1910년 전후에 시행된 것으로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의 풍요로움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자선조직운동을 펼쳤던 1860년대보다 늦은 시기였는데(Woodroffe, 1974: 3), 어쨌든 종교기관이 주도한 영국이나 미국의 실상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이후 사회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정부가 주도하며 방면위원을 포함한 민간을 파트너로 참여케 했고, 나아가 정부가 사회복지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민간의 사업이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 초기의 주요 대상이 불량청소년을 포함한 범죄인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이 공업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농지의 절대부족에 의한 빈곤(이계황, 2001: 170)”에 따른 비행과 범죄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셋째, 일본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의 단계별 변화에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전쟁수행과 경제부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일전쟁(1937-1945)을 단독으로나 동맹하여 치렀고, 이외에도 만주사변(1931)과 태평양전쟁(1941)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사업과 후생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부침을 반복하였다. 특히 후생사업은 전적으로 패전 막바지에 군사원호와 후방지원을 위해 한 시적으로 나타났음이 분명한데, 이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패전 후 즉각 『사회사업』으로 개제하여

복간시킨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은 제국주의적 정책 아래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1919년과 1921년에 세계적 대공황에 봉착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 운영이 난무하게 되었고(김현, 1991b: 27), 이런 가운데 유래 없는 경기의 호황을 누리며, 예컨대 『사회사업』과 『월간복지』 시기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이 영향을 미쳐 '사회사업'에서는 다양한 사회교육과 함께 여러 형태로 분화하였고, '복지'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즉 사회사업으로부터 여러 영역으로 분화된 것을 포괄하는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특히 제도 차원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사회복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 과정을 한결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다.

넷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의 변천을 통해 일본에서의 '사회복지' 변화 상황과 용어의 의미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엿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이 발전하여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사회사업에 이르렀고, 전쟁을 준비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사업 체제의 전환을 꾀하면서 후생사업이 등장했다. 전쟁에서 패한 후, 다시 사회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역사회의 욕구와 함께 사회복지어로 확장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에 관하여 용어상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지금의 의미를 지닌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청일전쟁(1894-1895) 후에 자본주의 경제조직이 확립되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桑原清起, 1934: 87), 당시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단체'라는 의미의 '사회'에 '사업'이 결합되어 여러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였고, 이후 영어권에서 들어온 Social Work의 번역어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1939년에 처음으로 이 잡지에 등장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시기 이후 경제부흥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존 사회사업을 뛰어넘어 매우 확대된 상황에 다다라 제도 차원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요컨대 사회사업은 감화사업을 비롯한 위생사업이나 직업소개사업 따위를 묶어 총괄어로 사용되었고, 나아가 실천의 전문성을 띠는 Social Work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⁵⁰⁾ 따라서 Social Work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사회사업'의 대칭어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이라야 한다. 아울러 '후생사업'은 '사회사업'과 대칭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후생복지'라는 용어는 성립이 불가하고, '후생 및 복지'나 '후생과 복지'로 써야 옳다. 물론, 1960년대에는 '사회복지' 대신 '사회개발'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 용어는 이 연구에서 다룬 잡지에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⁵¹⁾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용례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하고, "말의 한계는 체험의 한계이며, 말의 영역의 확대는 바로 체험의 확대이다(김현, 1992: 466)."라고 한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여섯 단계에서 사용된 다섯 가지 용어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각 단계의 전후에 겹쳐 문

49) 田口稔(1939)가 『사회사업』(제23권 8호)에 기고한 "滿洲開拓民の福祉問題"에서 확인하였다.

50) 이와 같은 현상은 小澤一(1936: 3)가 일본에서의 사회사업이 1930년대 중반부터 이익의 공영화와 각종 사회입법의 발달로 사회정책화 하는가 하면 사회정책과 결합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한 점, 지금도 사회사업학으로 칭하는 대학이 있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이는 1967년에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가 사회개발을 "경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정의의 구현과 복지의 증대에 부합되는 개념(김준엽, 1979: 1)"으로 규정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어 사용되었다. 이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가 있어 쉽게 용어를 통일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앞에 언급한 바처럼 사회사업이 Social Work의 번역으로서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고수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1951년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잡지를 발행했음에도 쉽게 『사회사업』을 개명하지 못하고 협회 명칭을 변경한 10주년 기념을 구실삼아 1961년에서야 『월간복지』지로 바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연구자가 사회복지 관련 문헌, 특히 저술에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나 자료를 적지 않게 들여왔거나 인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를 ‘향당’으로 쓴 것(김학목, 1955: 48), 미국 사회사업의 전문교육 역사를 일본 저술로부터 소개한 것(지윤, 1985: 311) 등이 이 잡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잡지를 직접 참고했는지 아니면 일본의 다른 자료를 인용했는지는 규명할 수 없으나 일본으로부터 들어 온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유입의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연구자가 선행연구자의 인용 건을 계속 다룸으로써 일본 문헌의 한국 문헌에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방법이나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만약 미국의 것이 일본 문헌을 통해 소개되었다면 이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국으로의 유입에 관하여 더욱 깊은 연구가 있다면 일본 문헌의 영향을 한층 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일곱째, 『월간복지』의 내용 중에는 정부를 대변하거나 전시체제와 같은 상황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잡지를 발행한 초기의 중앙자선협회나 지금의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일본 정부 및 군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잡지에 실린 글 중 당시의 사회복지 실상에 대해 온전히 비판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일본의 상황을 여법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인데, 바로 이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보아 마땅하다.

참고문헌

- 강만길, 1979, “개화기의 사회사업과 그 정책”, 홍승직·임희섭·양춘·강만길 지음, 『한국사회개발연구 I』,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5-245.
- 경향신문, 2012, “근대 일본이 치른 전쟁을 입체 조명”, 2012년 9월 1일.
- 구자현, 1970,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흥익재.
- 권중돈·조학래·윤경아·이윤화·이영미·손의성·오인근·김동기, 2011,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고상희 역, 2013, 『1942 대기근』, 孟磊·關國鋒·郭小陽, 2012, 『一九四二 飢餓中國』, 경기 파주: 글항아리.
- 김만두, 1985, 『사회복지와 법』, 서울: 흥익재.
- 김상균, 2009, “한국 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평가: 한국 사회복지 변천과 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43.
- 김성천·강옥모·김혜성·박경숙·박능후·박수경·송미영·안치민·엄명용·윤혜미·이성기·최경구·회현숙·한동우, 2010,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준엽, 1979, “서문”, 홍승직·임희섭·양춘·강만길 편, 『한국 사회개발연구 I』, 서울: 고려대학교출판

부, 1-2.

- 김영모, 1973,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법문사.
- 김영화·신원식·손지아, 2007,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경기 파주: 양서원.
- 김태환, 2001, “김주연 비평 이론의 전개 과정”, 성민엽 편, 『김주연 깊이 읽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63-182.
- 김필동, 1995, “서장 ‘한국 사회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용하·박명규·김필동 편, 『한국 사회사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3-38.
- 김학묵, 1955, 『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사업연합회.
- 김 현, 1991a, 『현대 비평의 양상』(김현문학전집 11),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1b, 『존재와 언어/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 (김현문학전집 12),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2, 『존재와 언어/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 (김현문학전집 12),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3, 『우리 시대의 문학/두꺼운 삶과 얇은 삶』, (김현 문학 전집 14), 서울: 문학과지성사.
- 남세진, 1979, “한국 사회사업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 51-71.
-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고양: 공동체.
- 박경일·김경호·서화정·윤숙자·이명현·이상주·이재모·전광현·조수경, 2010, 『사회복지학 강의』, 경기 파주: 양서원.
-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경기 파주: 학현사.
- 박영주 역, 1988, 『일본현대사』, 遠山茂樹·藤原彰·今井清一, 『日本現代史』, 1959, 서울: 한울.
- 백낙청 역, 199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Hauser, A., 1951, *The Social History of Art*(vol 1), 경기 파주: 창작과비평사.
- 백낙청·반성완 역, 199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Hauser, A., 1951, *The Social History of Art*(vol 1), 경기 파주: 창작과비평사.
- 백승중, 1996, 『한국사회사연구: 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서울: 일조각.
- 백창석, 1959, 『사회정책론』, 서울: 동국문화사.
- 서민교 역, 2013,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와나미신서 편집부, 2007, 『日本の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 서울: 도서출판 어문학사.
- 신광영, 2013, “전쟁과 복지”, 경향신문, “정동칼럼: 전쟁과 복지”, 2013년 12월 4일.
- 신규환, 2006,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경기 파주: 살림출판사.
- 신용하, 1984, “두레 공동체와 농약의 사회사”, 신용하 편, 『한국사회연구2』, 서울: 한길사, 11-53.
- 안상훈·조성은·길현중, 2005,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역사문제연구소, 1999,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 오정수·최해경·정연택·류진석·유채영, 2010, 『사회복지학개론』, 경기 파주: 양서원.
- 윤해동, 1999a, “일제하 촌락재편정책”, 역사문제연구소 편,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166-180.
- _____, 1999b, “한국 역사에서 사회사란 무엇인가”, 역사문제연구소 편,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377-388.
- 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파주: 양서원.
- 이계황 역, 2001, 『일본 사회의 역사(하)』, 網野善彦(아미노 요시히코), 1997, 『日本社會の歴史』,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이광규, 1999, “조선 후기의 혼례절차”, 역사문제연구소 편,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49-62.

- 이상신, 1994, 『역사학개론』, 서울: 신서원.
- 이영석, 2006, 『다시, 역사학의 길을 찾다』, 서울: 푸른역사.
- 이영학, 1999, “담배의 사회사”, 역사문제연구소 편,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343-360.
- 이영환, 1998, “제12장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하상락 편,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박영사, 423-466.
- 이종범, 1988, “1930년대 초의 ‘국민구제토목사업’의 성격”, 『역사학연구』, 2: 121-154.
- 이춘봉, 1978, “자선사업에 대한 소고”, 『동광』, 73: 1-3.
- 이혜경, 1995,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2: 125-146.
- 이혜원, 1997,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형성과정(1945년-1950년)”, 『한국사회복지학』, 33: 314-336.
- 이효인, 2003,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서울: 개마고원.
- 임호일 역, 2001, 『한스-게우르크 가다머』, Hammermeister, K., 1999, *HANS-GEORG GADAMER*,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장인협, 1981, 『사회복지개론』, 서울: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전남진, 1986, “미국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천과정”, 『미국학』(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9: 41-58.
- 정무권, 1996,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3: 309-352.
- _____, 2009, “결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미래 과제”, 정무권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II』, 서울: 인간과복지, 897-914.
- 정진영, 1999, “조선 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발달”, 역사문제연구소 편,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153-165.
- 조성윤, 1995, “제3장 인구 변동과 도시의 발달”, 신용하·박명규·김필동 편, 『한국 사회사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03-141.
- 조항범, 2003, 『예문으로 익히는 우리말 어휘』, 서울: 태학사.
- 주 간, 1954, “자선사업에 대하여”, 『활천』, 256: 1-2.
- 지 윤, 1985, 『사회사업사』(재판), 서울: 홍익재.
- 진형준, 2001, “시적 자아에서 초월까지”, 성민엽 편, 『김주연 깊이 읽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77-93.
- 최옥채, 2013, “일제강점기 농민복지: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2): 287-311.
- 최옥채·黒木保博, 2009,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에 관한 이해: 사회복지학 저술 과 계보학적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3): 129-153.
- 최옥채·黒木保博, 2011, 『일본 사회복지학 삼각측량』, 경기 과주: 양서원.
- 최인훈, 1998, 『문학과 이데올로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0,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 현외성, 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경기 과주: 양서원.
- 天達忠雄(아마타즈 타다오), 1940, “‘要救護性’の問題について: 社會事業本質に關する一試論として”, 『社會事業』, 24(5), 36-47.
- 阿部敦·渡邊かおり(아베 오즈시·와타나베 카오리), 2013, “社會事業教育における社會科學の視点: 戦前・戦後のつながりに注目して”, 『奈良女子大學社會學論集』, 20: 53-64.
- 杉山元治郎(아키야마 모토지로), 1928, “社會事業の農村への進出”, 『社會事業』, 12(4): 6-11.
- 安藤政吉(안도 마사키치), 1944, “増稅と決戦生活”, 『厚生問題』, 28(3): 1-12.

- 塚本哲(즈카모토 데즈), 1952, “地域組織化事業について”, 『社會事業』, 35(7): 4-9.
- 竹中勝男(다케나가 가츠오), 1951, “社會福祉事業と地域社會”, 『社會事業』, 34(12): 6-13.
- 澁澤榮一(이부사와 에이이치), 1917, “本誌改題に際あしての所感”, 『社會と救濟』, 1(1): 1-3.
 _____, 1926, “兒童教育の回顧”, 『社會事業』, 9(12): 4-9.
- 磯村英一(이소무라 에이이치), 1930, “政治戦線への社會事業の進出”, 『社會事業』, 13(10): 43-50.
- 關西福祉大學社會福祉研究會(간사이후쿠지다이카쿠샤카이후쿠지켄큐카이), 2009, 『現代の社會福祉: 人間の尊嚴と福祉文化』,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加藤陽子(가토 요코), 2009, 『それでも、日本人は“戦争”を選んだ』, 東京: 朝日出版社.
- 京都大學大學文書館(교토다이카쿠분쇼칸), 2006, 『京都大學の歴史』, 京都: 京都大學.
- 菊池勇夫(기쿠치 이사오), 1940, “社會事業本質の再檢討”, 『社會事業』, 24(4): 43-51.
- 後藤清(고토 교시), 1944, “戰時厚生事業の性格と任務”, 『厚生問題』, 28(1): 1-11.
- 後藤新平(고토 신페이), 1917, “救濟事業の理想”, 『社會と救濟』, 1(2): 5-8.
- 濱田本悠(하마다 모토하루), 1918, “社會問題に於 宗教ける使命”, 『社會と救濟』, 2(9): 14-16.
- 原胤昭(하라 타네아키), 2013, “中央慈善協會”, <http://www.kotobank.jp>.
- 堀秀彦(호리 히데히코), 1939, “慈惠の社會事業 概念の復興のために”, 『社會事業』, 22(10): 19-32.
- 本城俊明(혼조 토시아키), 1925, “農村問題概觀”, 『社會事業』, 9(2): 2-8.
- 藤井忠治郎(후지이 주지로), 1926, “臨床社會事業家の輩出 望む”, 『社會事業』, 29(7): 17
 _____, 1946, 『朝鮮無産階級の研究』,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 藤野惠(후지노 메구미), 1926, “本邦方面委員制度要論(1)”, 『社會事業』, 9(11): 17-26.
- 福山政一(후쿠야마 마사카즈), 1946, “社會事業の新生面”, 『社會事業』, 29(4): 2-4.
- 福岡文芳(후쿠오카 후미요시), 1941, “社會事業の本質への反省”, 『社會事業』, 25(1): 1-12.
- 一木喜徳郎(이치키 쿠토키로), 1926, “皇室と兒童保護”, 『社會事業』, 9(12): 2-4.
- 今岡健一郎(이마오카 겐치치로), 1947, “社會事業従事者の教育”, 『社會事業』, 29(7): 1-6.
- 伊佐忠一(이사 타다이치), 1946, “アメリカの社會事業學校”, 『社會事業』, 29(7): 17-22.
- 伊藤清(이토 키요시), 1938, “厚生省の新設と兒童課の使命”, 『社會事業』, 21(11): 2-4.
- 片岡優子(카타오카 유코), 2011, 『原胤昭の研究: 生涯と事業』, 兵庫: 關西學院大學出版會.
- 權名龍徳(켄나 타츠노리), 1932, “貧困兒童の給食に就て”, 『社會事業』, 16(8): 43-47.
- 木田徹郎(키다 테츠로), 1929, “社會事業に於ける科學性の必要”, 『社會事業』, 13(6): 2-5.
 _____, 1930, “政治的進出による大衆獲得”, 『社會事業』, 13(10): 37-42.
 _____, 1955, “戰後俄國の社會事業教育”, 『社會事業』, 38(10): 47-56.
- 菊池勇夫(기쿠치 이사오), 1940, “社會事業本質の再檢討”, 『社會事業』, 24(4): 43-51.
- 小林正金(코바야시 마사카네), 1930, “日本に於けるセツツルメント事業は”, 『社會事業』, 14(3): 74-78.
- 古坂明詮(코사카 메이센), 1931, “社會事業の職業化問題”, 『社會事業』, 15(7): 2-6.
- 窪田靜太郎(쿠보다 시즈타로), 1918, “戰時の工業衛生”, 『社會と救濟』, 2(4): 1-3.
- 黒木利克(쿠로키 토시카즈), 1951, “社會福祉事業法成立の意義”, 『社會事業』, 34(4): 6-12.
- 桑原清起(쿠와하라 세이키), 1934, “社會事業と云ふ言葉はいつ頃から本邦に於て使用されたか(完)”, 『社會事業』, 18(7): 86-93.
- 孝橋正一(교하시 쇼이치), 1965, “國民生活を守るために: 社會保障制度の展望”, 『月刊福祉』, 48(1): 17-21.

- 木村忠二(키무라 추지), 1961, “社會福祉協議會當面の課題”, 『月刊福祉』, 44(2): 28-31.
- 松田仁兵衛(마즈다), 1955, “社協のあり方と當面の諸問題”, 『社會事業』, 38(8): 2-8.
- 松本征二(마츠모토 세이지), 1942, “國民生活と厚生事業”, 『厚生問題』, 26(1): 12-17.
- 牧賢一(마키 켄이치), 1938, “昭和十三年の社會事業界を顧る”, 『社會事業』, 22(9): 34-46.
- _____, 1955, “民間社會事業施設と地域社會”, 『社會事業』, 38(4): 2-3.
- 大森公亮(모모리 코스케), 1935, “社會事業の經營に就て”, 『社會事業』, 19(2): 26-29.
- 守屋榮夫(모리야 사카오), 1927, “農村社會事業に就て”, 『社會事業』, 10(10): 6-12.
- 水尾比呂志(미즈오 히로시), 2004, 『評傳 柳宗悅』, 東京: 筑摩書房.
- 長崎發生(나가사키 하츠오), 1928, “農村問題私見”, 『社會事業』, 12(7): 41-48.
- 中村孝太郎(나카무라 코타로), 1933, “方面事業に於ける一つの根本問題”, 『社會事業』, 17(3): 35-41.
- 仲村優一(나카무라 유이치), 1966, “福祉事務所の問題點と將來”, 『月刊福祉』, 49(2): 23-29.
- 生江孝之(나마에 타카유키), 1918, “失業問題と職業紹介事業”, 『社會と救濟』, 2(4): 18-21.
- 二瓶万代子(나카메 마요코), 1961, ““赤い羽根”に思う”, 『月刊福祉』, 44(11): 3-10.
- 那須野隆一(나스노 류이치), 1968, “地域住民組織におけるリーダーの育成”, 『月刊福祉』, 51(2): 19-26.
- 丹羽昇(니와 노보루), 1955, “民間社會事業に關する諸問題”, 『社會事業』, 38(8): 3-7.
- 野口友紀子(노구치 유키코), 2010, “社會事業理論の4類型と方向性: 1938-1945年の『社會事業』から”, 『社會福祉學』, 50-4: 29-41.
- 日本社會事業大學四十年史刊行委員會(니혼사카이시교다이가쿠운쥬넨지칸코유인카이), 1986, 『日本社會事業大學四十年史』, 東京: 日本社會事業大學.
- 大林宗嗣(오바야시 무네즈구), 1930a, “社會運動に於ける社會事業の位置”, 『社會事業』, 13(10): 3-11.
- _____, 1930b, “社會事業に於けるセツルメントの地位”, 『社會事業』, 14(3): 12-19.
- _____, 1939, “生産的意義に於ける社會事業の再檢討”, 『社會事業』, 23(9): 1-12.
- 小河滋次郎(오가와 시게지로), 1917, “救濟事業の使命”, 『社會と救濟』, 1(1): 11-17.
- 小倉襄二(오구라 조지), 1967, “ボランティア活動の原點”, 『月刊福祉』, 50(6): 12-19.
- 小澤一(오자와 하지메), 1925, “組織社會事業 原則”, 『社會事業』, 9(1): 2-16.
- _____, 1931, “救護法運用の基本問題”, 『社會事業』, 15(5): 2-17.
- _____, 1936, “社會事業の本質の把握”, 『社會事業』, 20(8): 2-16.
- _____, 1942, “厚生事業體制確立の根據”, 『厚生問題』, 26(2): 18-26.
- _____, 1946, “社會事業の實踐理論”, 『社會事業』, 29(5/6): 34-41.
- 岡村重夫(오카무라 시게오), 1963, ““住民主體”の原則をふまえて”, 『月刊福祉』, 46(1): 2-6.
- _____, 1968, “セツルメント活動と地域組織化”, 『月刊福祉』, 51(10): 2-6.
- 大河内一男(오코치 카즈오), 1954, “社會事業の變貌”, 『社會事業』, 37(2): 7-21.
- ロバート・エー・ウツド(로버트 에이 우즈), 1919, “社會事業家の覺悟と社會植民事業”, 『社會と救濟』, 3(9): 1-9.
- 大石三良(오시 미오시), 1931, “社會事業の政治的進出”, 『社會事業』, 14(10): 22-28.
- 大藪壽一(오야부 주이치), 1967, “都市化と社會福祉”, 『月刊福祉』, 50(8): 34-39.
- 眞田是(사나다 나오시), 1963, “住民主體の原則: 社協活動への適用”, 『月刊福祉』, 46(10): 22-27.
- 佐藤信一(사토 신이치), 1954, “社協の反省と自負”, 『社會事業』, 37(1): 40-48.

- 重田信一(시게타 신이치), 1942, “都市厚生施設の地域組織に就て: 特に戦時下國民生活刷新運動との關聯に於て”, 『厚生問題』, 26(9): 1-5.
- _____, 1960, “地域ぐるみの貧乏追放運動”, 『社會事業』, 43(12): 18-22.
- 清水伸(시미즈 신), 1943, “健民國民組織論”, 『厚生問題』, 27(7): 1-22.
- 田口稔(타구치 미노루), 1939, “滿洲開拓民の福祉問題”, 『社會事業』, 23(8): 26-30.
- 雀部猛利(타케토시 사사베), 1960, “尼崎市における保健と福祉のための地域組織化について”, 『社會事業』, 43(3): 6-16.
- 田子一民(타코 이치민), 1919, “社會診察の必要と社會事業家養成機關設立の急務”, 『社會と救濟』, 3(1): 1-6.
- 谷川貞夫(타니가와 사다오), 1946, “社會事業理念形成の基底”, 『社會事業』, 29(5/6): 2-13.
- _____, 1951, “社會事業とコミュニティー”, 『社會事業』, 34(12): 4-5.
- _____, 1954, “社會事業における科學性の進展と技術”, 『社會事業』, 37(2): 3-6.
- _____, 1955, “卷頭言”, 『社會事業』, 38(8): 2.
- 谷山惠林(타니아마 에린), 1935, “日本社會事業史上に於ける佛教の地位”, 『社會事業』, 19(2): 15-19.
- 留岡幸助(토메오카 코스케), 1901, 『家庭學校』, 東京: 警醒社書店.
- 富田象吉(토미타 조키치), 1931, “救護法實施に際し社會事業家の要望”, 『社會事業』, 15(4): 4-7.
- 内片孫一(우치카타 마고이치), 1930, “セツルメント事業の方法”, 『社會事業』, 14(3): 40-44.
- 内野仙一郎(우치로 센이치로), 1954, “老齡と社會保障”, 『社會事業』, 37(9/10): 2-9.
- 内山脩策(우치야마 슈사쿠), 1955, “戰爭・平和”, 『社會事業』, 38(1): 2-6.
- 海野幸徳(운노 코토쿠), 1937, “我國社會事業の非常時體制”, 『社會事業』, 21(7): 15-36.
- 渡邊勝三郎(와타나베 카츠사부로), 1917, “時局と救濟事業”, 『社會と救濟』, 1(1): 3-5.
- 渡部剛士(와타나베 타케시), 1962, “保健福祉計劃を市町村社協ととりむなかで”, 『月刊福祉』, 45(9): 49-52.
- 八木巖(야기 시게루), 1962, “資格基準と給與體系について”, 『月刊福祉』, 45(9): 3-10.
- 山崎巖(야마자키 이와오), 1930, “兒童保護法制に關する當面の問題”, 『社會事業』, 14(8): 2-6.
- 横山定雄(오키야마 사다오), 1956, “社會福祉施設と地域活動”, 『社會事業』, 39(9): 9-16.
- 吉田久一(요시다 큐이치), 2004, 『新・日本社會事業の歴史』, 東京: 勁草書房.
- Gulick, S. L., 2012, *Evolution of the Japanese, Social and Psychic*(Reproduction Series), SC: BIBLIOBAZAAR.
- Romanynshyn, J. M., 1971,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 Wilensky, H. L., and Lebeaux, C. N.,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on the Supply and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 Free Press Paperback.
- Woodroffe, K., 1974, *From Charity to Social Work: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A Transi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in the Light of Monthly Welfare**
-From ‘Charity’ to ‘Social Welfare’ by Social Historic Perspective-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uroki, Yasuhiro

(Doshisha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in the light of Monthly Welfare which is the oldest profess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in Japan. Especially, this study has insisted on grasping the interaction amo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social historic perspective. Consequentially, some important themes are emerged from the journal which had been changed as time passes(Charity, Society and Relief, Social Work, Public Welfare Work, Social Work, and Monthly Welfare) as follows; ‘strict declaration of charity and relief’, ‘relief work and social worker’, ‘professionalism and science of social work’, ‘national life rebuilding and loca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new face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social work’, ‘community work and fund raising’,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at ‘Sahoisaup’ is a word of translation from Social Work, in addition this word has been used as a word including diverse works in Japan.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Japanese experience could be studied in Korea.

Key words: monthly welfare, charity, social work, social welfare, social historic perspective

[논문 접수일 : 14. 03. 19, 심사일 : 14. 04. 09, 게재 확정일 : 14. 05. 12]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일본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사회학부 및 사회학연구과 교수. 주요 관심 영역으로 그룹워크 전문기술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들 수 있고,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최근에는 사회복지 원조기술, 사회복지사상에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E-mail : ykuroki@mail.doshisha.ac.jp

이광모

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최근 주요논문과 저서로 “조선시대 흡연문화의 형성과정 연구: 국가권력의 역할을 중심으로”(『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1(1), 201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효(爻)’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45(3), 2011),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한국공공관리학보』, 24(3), 2010 공저), 『장애인복지정책론』, (이야기담,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돌봄/죽음 등임.

E-mail: lkm@songho.ac.kr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한국가족복지학』, 42, 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사회복지연구』, 44(2), 2013, 공저),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중단 연구”(『한국가족복지학』, 40, 2013, 공저),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 공저),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재미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2), 2010, 공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용 비모수통계』, (집문당, 2007),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5,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강점관점 실천, 구성주의 사회복지실천 등임.

E-mail: myum@skku.edu

송민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 주요 논문으로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한국사회복지학』, 63(1), 2011, 공저)가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학교폭력과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 질적 연구임.

E-mail: buta79@naver.com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사회적기업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경향분석”(『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 (1), 2013, 공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4), 2012) 공저, “조직요인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4 (3), 2012, 공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 지역 사회복지, 사회적기업임.

E-mail: sangmicho@ewha.ac.kr

김진숙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 최근의 주요논문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전략”(『KBR』, 18 (2), 2014, 공저), “사회적기업 정책 특성 비교분석 연구”(『사회복지정책학회보』, 38 (2), 2011) 공저, “공공부문 부패수준 개선국가와 우리나라 부패방지 정책 특성 비교분석”(『한국부패학회보』, 15 (2), 2010,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행정부패, 사회적기업, CSR, 보건의료정책임.

E-mail: philiakjs@gmail.com

허용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박사후연구원. 최근 논문으로는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in Korea and Singapore”(University of York, unpublished PhD thesis, 2012),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층동 정부까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0(3), 2013)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발달사, 주택정책 비교연구, 사회서비스와 복지국가 등임.
E-mail: heoyc1@gmail.com

현경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2012, 공저),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사회심리를 응용한 임상실천치식 개발, 다문화가족복지, 사회문화적 소수자의 역량강화임.
E-mail: swwhyun22@hanmail.net

남일성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논문으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Texas Revised Inventory of Grief”(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3(1), 65-73.), “Is student debt jeopardizing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95(5), 405-424.)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 건강불평등, 사별, 복잡성 비애감, 경제적 곤란 등임.
E-mail: ilsungn@hallym.ac.kr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 2013), “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18(4), 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19(1), 2011) 등이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 등임.
E-mail: mspark@sangji.ac.kr

이재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012),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2), 2013),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 (중독포럼,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정신건강(알코올 및 중독), 아동·청소년복지임.
E-mail: good-man0424@daum.net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논문으로 “김만두 비평: 그의 실천경험과 연구문헌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4)), 저술로는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양서원, 2012) 등이 있음. 현재 “한국 사회복지실천 정체성 비평”과 『한국 사회복지학 통설』을 준비하고 있음.
E-mail : okchai@jnu.ac.kr